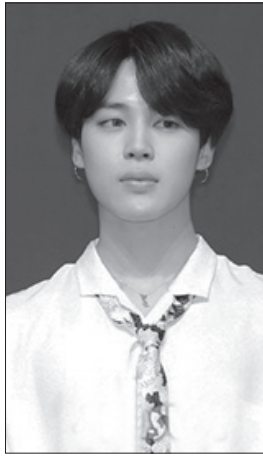


BTS 지민 “협박에 휘둘릴 여유 없어”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자신이 받은 살해 협박에 대해 걱정할 것 없다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 한 익명의 네티즌이 오는 9월 16일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미국 포트워스 공연에서 지민(왼쪽)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파장이 일었다. 지민의 살해 협박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24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는 방탄소년단 ‘LOVE YOURSELF 轉 Tear’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지민은 최근 있었던 “출국 때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게 살해협박 때문이나”는 질문에 웃음을 지어보이며 “사진을 통해 찍힌 안 좋았던 표정은 출국 직전에 컴백쇼 녹화도 있었고 장시간 비행 때문에 그런 것이니 살해 협박에 대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고 답했다.

또 그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이런 소식이 들려서 당황스럽다”며 “저보다 팬 분들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저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말에 휘둘릴 여유가 없다”며 “저희 스태프들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탄소년단 지민은 지난 14일 빌보드 뮤직어워드 참석을 위해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익명의 트위터 계정으로부터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바 있다. 이 계정 이용자는 “9월 16일 미국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에서 지민을 총으로 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당시 방탄소년단 측과 미국 현지 경찰이 협력해 보안을 강화했고 아무 사고 없이 빌보드 뮤직어워드 공연은 무사히 마무리됐다.

방시혁, 미 빌보드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가 세계 음악시장을 움직이는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에 선정됐다.



21일 미국 빌보드는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 73인을 발표하며,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가 음악 제작 부문 파워 플레이어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인터내셔널 파워 플레이어스’는 빌보드가 2014년부터 세계 음악 시장을 움직이는 업계 리더들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리스트다. 방시혁 대표 외에도 에드 쉬러(Ed Sheeran)의 매니저이자 그룹피 올드 매니지먼트(Grumpy Old Management)의 오너인 슈어트 캠프(Stuart Camp)가 ‘올해의 경영자’로 선정됐고, 전 세계 음악업계의 유명인사들이 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는 “방시혁 대표가 프로듀싱 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Her)’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160만 장 이상 팔렸으며, 한국 그룹 최초로 빌보드 200 TOP 10 안에 이름을 올렸고, 앨범 타이틀 곡 DNA는 Digital Song Sales 37위에 올랐다”고 소개했다.

방시혁 대표는 빌보드 매거진을 통해 “더 많은 K-Pop 가수들의 음악이 차트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는 미국 음악 팬들을 만족 시킬 아티스트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말했다.

팝가수 알 켈리, 10대 소녀 성폭행 피소



유명 팝스타 알 켈리(사진)가 성범죄에 연루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OSEN’이 외신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한 여성이 지난해 알 켈리에 성폭행 당해 헤르페스 성병을 얻었다며 고소장을 냈다.

매체는 “19살이던 피해자는 지난해 3월 뉴욕에서 열린 콘서트 현장에 갔다. 공연을 마친 알 켈리는 피해자를 호텔 방으로 불러 접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원치 않았지만 알 켈리는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알 켈리에 성폭행을 당한 뒤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알 켈리의 폭언과 변태적인 성행위로 정신적인 학대까지 당했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알 켈리는 ‘I Believe I Can Fly’, ‘Bump N Grind’, ‘I’m A Flirt’, ‘Been Around the World’ 등을 히트시키며 한국 팬들도 많은 알앤비 가수다. 2008년에는 미국 빌보드 선정 ‘가장 성공한 가수 50인’에 선정된 바 있다.

1213호 숫자퍼즐 정답								
9	1	3	7	5	8	4	2	6
8	7	6	4	9	2	5	1	3
4	2	5	1	3	6	7	8	9
1	3	9	8	4	7	2	6	5
6	4	2	9	1	5	3	7	8
5	8	7	2	6	3	9	4	1
7	9	8	3	2	1	6	5	4
2	5	4	6	8	9	1	3	7
3	6	1	5	7	4	8	9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일진(日辰)에 따른 상담 만족도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필자가 고객들과 매일 인생 상담을 하다보면 그 날의 일진(日辰)에 따라서 고객들의 만족도가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루의 일진(日辰)에 따라서 남자 고객들이 만족한 날이 있고 여자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날로 나뉘게 된다. 예를들어 여자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일진(日辰)에 해당하는 날에 여자 고객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는 필자가 그다지 상담을 잘해 준 것도 아닌데도 여자 고객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그런 날에 남자 고객들과 상담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설명을 해주어도 남자 고객들은 크게 만족하기 힘든 것이다. 몇 주 전에 여자들이 만족하는 일진(日辰)에 해당하는 날에 어떤 중년 부인과 상담을 하면서 필자가 건넨 말은 “타고난 팔자가 그래도 남다른 손기술이 있고 꾸미고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이,미용 분야처럼 손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진짜 족집게네요.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 날은 필자가 그다지 특별히 잘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도 아주 흡족해 하는 것이다. 몇 일 후에 그 부인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다시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날은 여자가 만족하기 어려운 일진(日辰)이었다. 그래서 필자가 특별히 신경써서 상담을 해주었는데 같이 온 친구 분이 그다지 만족해하는 눈치가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왔던 중년부인이 하는 말이 “전번에는 족집게처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은 시원치 않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필자가 해준 변명은 “오늘은 여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일진(日辰)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일진에는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 주어도 여자라면 만족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변명을 해주었지만 아무리 필자라 해도 음양(陰陽)의 이치에 따른 일진(日辰)의 영향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714.534.4645</div>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